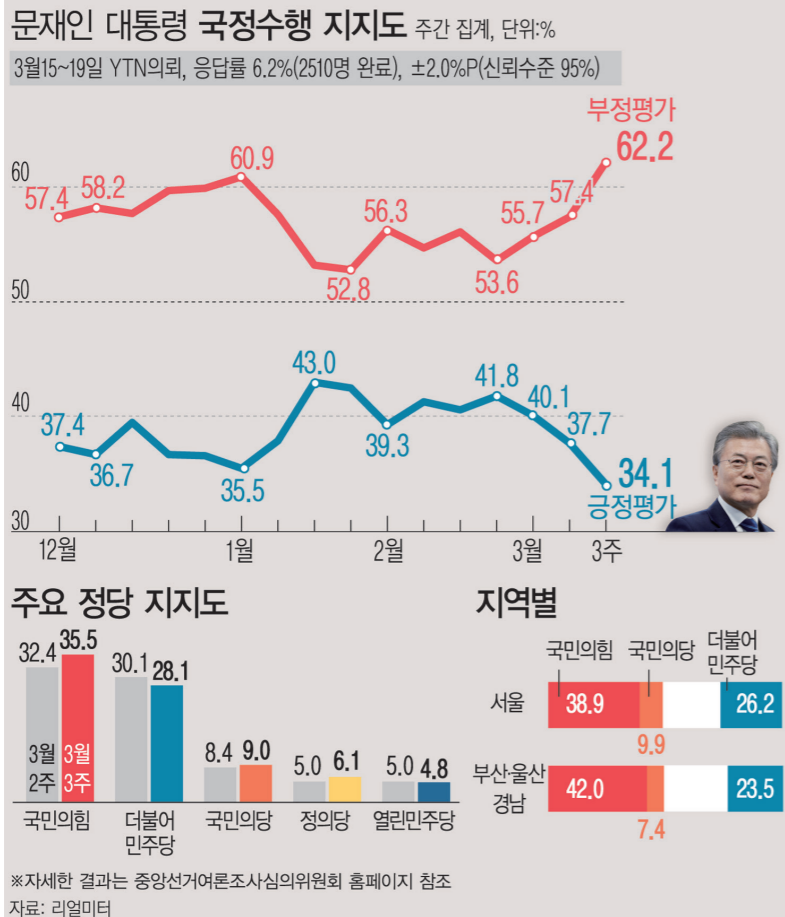


# 文대통령 지지율 34.1% 내 투기 의혹에 '최저치'

### 부정평가 62.2% ...국민의힘 35.5%로 창당 후 최고 기록



(6.2%P↑)·70대 이상(6.1%P↑)·30대(5.5%P↑)·50대(5.5%P↑), 무당층(7.9%P↑), 중도층(6.1%P↑), 학생(16.3%P↑)·노동직(6.5%P↑)·가정주부(6.5%P↑)에서 높았다.

정당 지지도를 살펴보면 국민의힘은 35.5%, 민주당은 28.1%를 기록했다. 양당 격차는 7.4%포인트로 오차 범위 밖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섰다.

국민의힘은 전주 대비 3.1%포인트 올랐는데, 2020년 8월2주차 조사에서 36.3%를 기록한 이후 최고치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보수층 보다 중도층이 견인한 것으로 보인다. 2월 4주차 조사부터 이번 조사까지 보수층 지지도는 54.1%→57.5%→58.0%→56.5%로, 2.4%포인트 올랐고, 중도층에서는 31.0%→35.0%→35.0%→37.0%포인트의 흐름을 보이는 등 6.0%포인트가 상승했다.

전주 대비 2.0%포인트 내려 2월 4주차부터 3주 연속 하락세를 보인 민주당은 정권 출범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직전 최저치는 2020년 12월 4주차와 올해 1월1주차 때 기록한 29.3%였다. 민주당은 광주·전라(1.5%P↑), 남성(1.4%P↑), 무직(7.5%P↑)·노동직(2.4%P↑)·사무직(1.6%P↑)에서는 지지도가 올랐다. 그러나 TK(8.8%P↓)·충청권(3.3%P↓), 여성(5.3%P↓), 70대 이상(4.4%P↓)·50대(3.6%P↓), 중도층(2.4%P↓), 학생(9.8%P↓)·가정주부(6.0%P↓)·자영업(4.2%P↓)에서는 하락했다.

리얼미터 관계자는 "문 대통령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도 모두 진보층에서 하락이 크다는 점은 LH 이슈가 해소되고 선거 국면이 다가오면 회복 탄력성을 보일 개연성이 높다"며 "현재 수준의 지지도는 재보선을 앞두고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서울취재본부김윤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정권 출범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3월 3주차(15일~19일) 주간 집계 결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전주 대비 3.6%포인트 내린 34.1%(매우 잘함 18.4%, 잘하는 편 15.7%)로 조사됐다고 22일 밝혔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4.8%포인트 오른 62.2%(매우 잘못함 46.6%, 잘못하는 편 15.7%)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1.2%포인트 감소한 3.7%였다.

이번 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율은 3주 연속 하락세를 거쳐 출범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직전 최저치는 지난 1월1주차 35.5%였다. 부정 평가율은 마찬가지로 1월1주차 60.9%였다. 긍정·부정 평가 차이는 28.1%포인트

로 가장 컸다.

리얼미터 관계자는 "LH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지방 의회와 타 기관, 야권 정치인으로부터 비화하며 부동산 이슈가 확산 일로에 있다"며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사과를 하는 등 진화에 나섰지만 불길은 못잡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문 대통령의 이탈세는 진보층이 중도층보다 큰 것으로 분석된다.

지지율은 20대(1.7%P↑, 26.4%→28.1%, 부정평가 69.1%)와 정의당 지지층(3.5%P↑, 22.8%→26.3%, 부정평가 65.7%), 열린민주당 지지층(2.3%P↑, 75.0%→77.3%, 부정평가 20.7%), 무직(7.8%P↑, 26.8%→34.6%, 부정평가 61.0%)을 제외하고 모두 하락했다. 특히 부정 평가 상승율은 대구경북(9.5%P↑)·부산경남(6.2%P↑)·충청권(5.9%P↑), 여성(5.7%P↑)·남성(4.1%P↑), 40대

# 여야, 'LH 특검·국조' 실무협상단 구성 완료...오늘 첫 회의

민주당, 김영진·송기현·김회재  
국민의힘, 김성원·김도읍·유상범

여야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특검과 국정조사, 국회의원 전수조사 등을 논의할 실무협상단을 구성하고 23일 첫 회의를 갖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실무협상을 진행할 3대3 실무협상단 구성을 완료했다. 민주당에서는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를 포함해 검사 출신인 송기현·김회재 의원이 참여한다. 국민의힘은 협상단에 김성원 원내수석과 검사 출신 김도읍·유상범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실무협상단은 23일 오후 2시 첫 회의를 갖고 LH 사태 수사를 위한 특검의 범위, 기간 등을 세부적으로 조율하고 국정조사, 국회의원 전수조사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서울취재본부김윤호 기자



평화의 소녀상 살펴보는 정세균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총리가 22일 서울 구로구 구로역 광장에 설치된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아 방역현장 점검을 마치고 평화의 소녀상을 살펴보고 있다.

## '순천대표 폭순이' 한춘옥 도의원 후보

### "엄마의 마음으로 새 정치 밀알되겠다"

"고향 순천위해 나누는 삶 걸심"  
"시민만을 위한 정치 할 것" 다짐  
자타공인 농촌전문가 기대감 높아



전남 순천 제1선거구 도의원 재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한춘옥 후보가 22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민생해결사, 순천대표 폭순이 한춘옥이 새로운 정치의 밀알이 되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정춘숙 전국 여성위원장, 김승남 도당위원장을 비롯해 순천광양곡성구례갑과을의 지역위원장인 소병철 의원과 서동용 의원, 주철현 의원, 김회재 의원 등 전남 지역 국회의원들도 출석했다.

한 후보자는 "농촌에서 태어나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환경에 굴하지 않고 끈기와 근성으로 여기까지 왔다. 저를 키워준 제 고향 순천을 위해 은퇴 후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보살 피고 나누는 삶을 살겠다고 걸심했다"며 "마침 사랑하는 순천 시민 분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기꺼이 제가 맡고 나서야겠다고 마음먹었다"고 출마를 결심하게 된 계기를 설명했다.

또 "저에게 거는 기대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낄 수 있다"며 "김승남 전남도당위원장, 소병철 지역위원장, 그리고 민주당 도·시의원들과 하나가 되어 오직 순천과 시민만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굳은 의지를 다졌다.

한 후보자는 시민의 삶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실현가능한 공약을 지역정책과 중앙정책으로 나눈 5+5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오천지구 공공임

대주택 분양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과밀화된 학교 문제를 해소, 학교 밖 돌봄공간을 조성하는 등 시민의 주거환경과 교육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한 공약들이 눈에 띈다.

자타공인 '농촌전문가'인 만큼 스마트 농업기반 구축 등 농업소득을 증대시키고 농민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대책을 촘촘히 마련해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생활정치인'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김승남 전남도당위원장은 "순천 시민들의 정치혁신을 바라는 마음이 담겨서 공천이 됐다"며 "여성 정치인을 많이 배출해야 하는데 여성 정치인을 뽑았더니 일 잘한다는 믿음을 심어줄 수 있게끔 이번엔 한 후보를 반드시 당선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소병철 지역위원장은 "전남은 도당위원장의 리더십 아래 팔팔 뭉쳐 일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위기에 강하다. 다시 한 번 민주당이 어려움을 돌파하고 국가를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순천 시민 여러분께서 원동력을 만들어 달라"고 강조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 전국 꽃배달 서비스

# 60,000

##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 직통전화 010-2400-7774

☎ 주문팩스 062-946-0053